

# 텅 빈 교실엔 교사 혼자...학생들 출석체크는 온라인으로



1일 오전 광주 북구 지산중학교에서 한 중3 담임교사가 휴대전화 앱의 실시간 방송 기능을 이용해 학급 조화를 하고 있다.

넓은 교실에는 교사 한 명 뿐이다.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다. 텅 빈 교실에서 교사는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했다.

1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지산중학교. 이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이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 4

개 학교 중 하나로 지난 3월 30일부터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3학년 7반 담임인 김지숙 교사는 오전 9시20분쯤 텅 빈 교실에서 출석을 불렀다.

학생들은 김 교사가 소셜 미디어 앱 '밴드'에서 켜 실시간 방송에 채팅으로 자신이 출석했음을

## 원격교육 시범학교 광주 지산중학교

### 과목당 1~2교시씩 묶음방식으로 진행

일렀고, 김 교사는 출석부에 이를 표시했다.

출석 확인이 끝나고 조화가 시작됐다.

김 교사는 "항상 비누로 손을 잘 씻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라"면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사는 발열 여부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확인한 뒤 이날 계획된 수업을 안내했다.

이날 학생들은 1·2교시 국어, 3·4교시 역사 수업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한 뒤 5·6교시 과학, 7교시 수학 수업을 듣는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

전과 달라진 점 중 하나는 한 과목씩 진행되던 수업이 과목당 1~2교시씩 묶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매일 한번 있던 국어과목이 수요일 1·2교시, 목요일 5·6교시, 금요일 4교시에 배치되는 식이다.

수업은 시간표에 맞춰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있어 수강이 어렵거나 학원 수업 시간과 겹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그날 밤까지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출결과 수강 내역은 e-학습터 교사 전용 페이지에 반영된다. 수업 내용도 평소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김 교사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동영상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수업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고 전했다.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그는 "온라인에서는 기본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모든 학생들이 버거워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심화학습이나 실습은 등교 후에 하려고 한다"면서도 "등교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다 보니 여러 모로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다음주부터 개학에 들어갈 다른 학교 교사들에게 조언도 건넸다.

그는 "학생들이 4주 가까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밤낮이 바뀐 경우가 많다"며 "지난 월요일 첫 조회에서 '너무 힘들다'던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매일 출석을 확인했더니 이제는 대부분 출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개학 후 발견될 문제들이 적정"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하

기도 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e-학습터에 300메가바이트 용량제한이 있어 45분짜리 수업 동영상도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몇 개 파일로 쪼개서 올려야 한다.

박민아 교감도 "고등학교 경우 EBS를 활용하기 용이한 데 반해 중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며 "e-학습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선생님들이 수업준비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9일, 1주일 뒤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개학한다.

조인호 기자

##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 자가격리 늘면서 '가족 감염' 비상

### 생활 수칙만으로 한계...개학 연기까지 앞둔 데 달친 격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중인 국민이 급증하고 사상 초유의 '4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가족 감염' 차단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부터 그간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게만 해당하던 자가격리 지침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날(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4월20일까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오프라인 등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정부 방침으로 기존 학생들을 비롯해 자가격리자 등 집에

서 생활하는 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족감염 관리가 코로나19 추가 전파 방지에 중요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방대본에서는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실제 부천에서는 전날 기준 최근 10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25명) 중 가족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68%(17명)에 달했다.

여기에 일가족 전원이 감염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귀국한 이들을 중심으로 일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 김영편입학원의 한 강사는 영국에서 입국한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가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2차 자가격리 사태까지 이어졌다.

질본의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에 따르면 가족격리도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하고 격리자와는 식사를 해선 안 된다. 화장실 등 꼭 함께 써야 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족 구성원의 의지뿐 아니라 공간 측면에서도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포함된다면 이를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다.

어린이의 경우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부모 없이 매우 어렵고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모 통제 속에 있기 어렵게 됐다.

김주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렵겠지만) 가족 중 격리자가 있다면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고, 식기부터 침구까지 모든 물품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도 거리두기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 '도피 21년' 정태수 넷째 정한근, 1심 징역 7년·추징금 400억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55)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